청소년의 시험불안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노 지 영

1.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전해가는 이토기로 신체적, 신리적 변화가 극심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발달과정 중 정신건강적면에서 위약하며, 주요 정신질환의 초발 영연에 해당한다 한다(Hong & Ahn, 1998). 또한 청소년들은 그를 화장 대로의 가치와 판단을 새로운 형성하야 하여 영역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전하게되며 자아성장감을 형성하는데 이 시기의 학생에게 학업성은 중요하게 밀접히 연연되면서 청소년기에 정신적 부담감과 학업성간의 유의미도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교육 습관조 대학입학 여부로 결정하는 경향 때문에 학교에서의 생활교육을 포함한 인문교육보다는 시각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의 기여가 적으며 학생들이 그 기록 모가의 시험의 과정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어 이로 인해 정서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Le, 1993).

청소년들은 그들만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제산하지 못하며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여 높은 압박감과 학교 보건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9년대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 중학생여의 의로 보유 중 요소 51.2%가 시험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자살 이후 및 통기의 (31.4%)가 정서적 빈약을 했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서적 드라마 불안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은 물론 시험의 결과인 성적으로 평가받고, 학생의 정서를 결정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원이 될 수밖에 없다.


* 정신보건대학교 보건교사학교처 Email: infax@bnu.edu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경신감각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경신감각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경신감각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불안과 경신감각의 정도를 파악한다.
4) 청소년의 경신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경신감각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례적 사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으며, 1년에 1회씩 인문학 고등학교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체적 고등학교는 남학생 14명, 여학생 16명, 기수 1개로 해당 고등학교의 학과 별 고시의 점수를 얻으므로 15학급은 전부 포함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조사목적, 질문지 작성 요령, 비밀 유지 등을 설명하고 보통지는 응답 후 질문지를 비밀로 하여 하루에 2회씩 1명당 5분 동안 작성하였다. 질문지 작성시간은 15분이었으며 학생들은 질문지를 원천히 하고 그 자료에서 회수하였다. 질문이 분명하지 않고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는 제외하고 총 48시간의 질문지가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1) 사회불안

청소년의 사회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Spielberger 등 (1980)이 만든 사회불안성척도(SST)에 기초한 것을 사용하였다. 20문항을 사용하여 '경험에 대한 걱정, 불안, 불안정한 감정, 압력감, 불안정한 감정, 압력감, 불안정한 감정, 압력감'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국 Lee, 1992)의 점수에서 정규화된 대상이 학년에 따라 1일 이상의 주요한 단계가 높 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0.87, 0.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0.87, 0.89로 나타났다.

2) 경신감각

청소년의 경신감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Lee(1987)가 개발한 청소년 경신감각 지수를 사용하였다. 20문항으로 구성한 '사회적 지지감, 경신감각 지수'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점 Likert형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가 '매 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적 지지감, 경신감각 지수의 각 문항은 높을수록 경신감각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경신감각지수는 사회적 지지감, 경신감각 지수의 점수를 합하여 경신감각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 78, 사회적 지지 76, 정신 발달지수 80으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청소년의 성적과 성별별 대조는 t-test로 분석하였으며
2) 청소년의 성적과 성별별 대조는 ANOVA로 분석하였다.
3) 청소년의 성적과 성별별 대조 및 선정적 성과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청소년의 성적과 성별별 대조 및 선정적 성과 상관관계는 오스인 성과 상관관계는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청소년의 성적과 성별별 대조의 예측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남학생이 220명(54.4%), 여학생이 155명(45.6%)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로서는 2학년이 178명(46.8%), 3학년이 155명(45.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종교教는 주로 기독교가 많아 231명(51.8%)으로 종교교 기독교가 가장 많았으며, 전교교가 차지하는 기독교는 251명(60.7%)이 "모직 추출"을 시행하였다. 학교성적 학급별 5학년 "성(1-5학년)"은 50명(20.2%), 중학(3-5학년)은 272명(47.1%), "성(3-5학년)"은 82명(18.7%)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114명(55.6%)", "보통"
이 332명(34.3%), "보통"이 243명(25.4%)이었다. 선생님의 평균은 "평균"이 156명(23.8%), "보통"이 257명(27.0%)이었다. (Table 1).

2. 청소년의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의 정도

청소년의 사회생활 정도는 최소 0에서 최대 5.0의 범위로 평균 2.77점이었다. 정신건강의 차이 성적은 "자아존중"은 평균 1.80점, "사회적 지지"는 평균 1.93점, "정신발달지수"는 평균 0.86점이었다. (Table 2).

3. 청소년의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의 관계

청소년의 사회생활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사회생활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thead>
<tr>
<th>Table 1</th>
<th>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th>
</tr>
</thead>
<tbody>
<tr>
<td>characteristic</td>
<td>item</td>
</tr>
<tr>
<td>Gender</td>
<td>male</td>
</tr>
<tr>
<td></td>
<td>female</td>
</tr>
<tr>
<td>Grade</td>
<td>freshman</td>
</tr>
<tr>
<td></td>
<td>sophomore</td>
</tr>
<tr>
<td></td>
<td>junior</td>
</tr>
<tr>
<td>Religion</td>
<td>yes</td>
</tr>
<tr>
<td></td>
<td>no</td>
</tr>
<tr>
<td>Perception of domestic</td>
<td>high</td>
</tr>
<tr>
<td></td>
<td>middle</td>
</tr>
<tr>
<td>economy status</td>
<td>low</td>
</tr>
<tr>
<td>School record (class rank)</td>
<td>top(0-5)</td>
</tr>
<tr>
<td></td>
<td>middle(6-30)</td>
</tr>
<tr>
<td></td>
<td>bottom(31-60)</td>
</tr>
<tr>
<td>School life satisfaction</td>
<td>satisfied</td>
</tr>
<tr>
<td></td>
<td>unsatisfied</td>
</tr>
<tr>
<td>Relationship with teachers</td>
<td>good</td>
</tr>
<tr>
<td></td>
<td>moderate</td>
</tr>
<tr>
<td></td>
<td>bad</td>
</tr>
<tr>
<td>Total</td>
<td>445</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Table 2</th>
<th>Descriptive statistics for test anxiety</th>
</tr>
</thead>
<tbody>
<tr>
<td>Variables</td>
<td>Mean</td>
</tr>
<tr>
<td>Emotionality</td>
<td>2.36</td>
</tr>
<tr>
<td>Worry</td>
<td>2.40</td>
</tr>
<tr>
<td>Test anxiety</td>
<td>2.40</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Table 3</th>
<th>Descriptive statistics for mental health</th>
</tr>
</thead>
<tbody>
<tr>
<td>Variables</td>
<td>Mean</td>
</tr>
<tr>
<td>Self esteem</td>
<td>1.56</td>
</tr>
<tr>
<td>Social support scale</td>
<td>1.60</td>
</tr>
<tr>
<td>Mental pathology</td>
<td>0.84</td>
</tr>
<tr>
<td>Social interaction</td>
<td>1.99</td>
</tr>
</tbody>
</table>

- 450 -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test anxiety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table>
<thead>
<tr>
<th>Variables</th>
<th>Emotiality (r)</th>
<th>Worry (r)</th>
<th>Test anxiety (r)</th>
</tr>
</thead>
<tbody>
<tr>
<td>Self-esteem</td>
<td>-0.18(0.01)**</td>
<td>-0.23(0.00)**</td>
<td>-0.22(0.00)**</td>
</tr>
<tr>
<td>Social support</td>
<td>-0.16(0.01)**</td>
<td>-0.17(0.01)**</td>
<td>-0.16(0.01)**</td>
</tr>
<tr>
<td>Mental pathology</td>
<td>-0.26(0.00)**</td>
<td>0.24(0.00)**</td>
<td>0.26(0.00)**</td>
</tr>
<tr>
<td>Mental health</td>
<td>-0.22(0.01)**</td>
<td>-0.23(0.00)**</td>
<td>-0.22(0.00)**</td>
</tr>
</tbody>
</table>

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를 하위 영역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와의 상관관계는 (r=-0.17, p<0.001) '사회적 지지'와 (r=-0.16, p=0.02)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의 차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는 성별 (t=-1.98, p=0.05), 자녀 (t=-2.64, p=0.02), 학교 생활 만족도 (t=-1.10, p=0.05), 신체 건강 (t=-1.10, p=0.03)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 학생이 지나가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 학교 경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지지'와 SOCt=2.14, p=0.002)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5> Mean differences in test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able>
<thead>
<tr>
<th>Characteristics</th>
<th>Emotiality</th>
<th>Worry</th>
<th>Test anxiety</th>
</tr>
</thead>
<tbody>
<tr>
<td>Gender</td>
<td>Male</td>
<td>1.30(0.58)</td>
<td>1.30(0.57)</td>
</tr>
<tr>
<td></td>
<td>Female</td>
<td>1.40(0.58)</td>
<td>1.40(0.57)</td>
</tr>
<tr>
<td>Grade</td>
<td>freshman</td>
<td>1.30(0.58)</td>
<td>1.30(0.57)</td>
</tr>
<tr>
<td></td>
<td>sophomore</td>
<td>1.40(0.58)</td>
<td>1.40(0.57)</td>
</tr>
<tr>
<td></td>
<td>senior</td>
<td>1.50(0.58)</td>
<td>1.50(0.57)</td>
</tr>
<tr>
<td>Religion</td>
<td>yes</td>
<td>1.30(0.58)</td>
<td>1.30(0.57)</td>
</tr>
<tr>
<td></td>
<td>no</td>
<td>1.40(0.58)</td>
<td>1.40(0.57)</td>
</tr>
<tr>
<td>Perception of</td>
<td>high</td>
<td>1.30(0.58)</td>
<td>1.30(0.57)</td>
</tr>
<tr>
<td>academic</td>
<td>low</td>
<td>1.40(0.58)</td>
<td>1.40(0.57)</td>
</tr>
<tr>
<td>School record</td>
<td>good (face)</td>
<td>1.30(0.58)</td>
<td>1.30(0.57)</td>
</tr>
<tr>
<td></td>
<td>bad (side)</td>
<td>1.40(0.58)</td>
<td>1.40(0.57)</td>
</tr>
<tr>
<td>School life</td>
<td>satisfied</td>
<td>1.30(0.58)</td>
<td>1.30(0.57)</td>
</tr>
<tr>
<td>satisfaction</td>
<td>unsatisfied</td>
<td>1.40(0.58)</td>
<td>1.40(0.57)</td>
</tr>
<tr>
<td>Relationship</td>
<td>good</td>
<td>1.30(0.58)</td>
<td>1.30(0.57)</td>
</tr>
<tr>
<td>with teacher</td>
<td>bad</td>
<td>1.40(0.58)</td>
<td>1.40(0.57)</td>
</tr>
</tbody>
</table>
<Table 5> Mean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able>
<thead>
<tr>
<th>Characteristics</th>
<th>Item</th>
<th>Self-role</th>
<th>Self-support role</th>
<th>Mental well-being</th>
<th>Mental heal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MA</td>
<td>1 to 5 P</td>
<td>Subscale</td>
<td>MA</td>
<td>1 to 5 P</td>
</tr>
<tr>
<td>Gender</td>
<td>Male</td>
<td>2.64(3.02)</td>
<td>1.94(2.78)</td>
<td>2.46(3.03)</td>
<td>2.27(2.95)</td>
</tr>
<tr>
<td></td>
<td>Female</td>
<td>2.79(3.01)</td>
<td>2.16(2.96)</td>
<td>2.53(3.01)</td>
<td>2.34(2.98)</td>
</tr>
<tr>
<td>Age</td>
<td>15-24</td>
<td>3.02(3.01)</td>
<td>2.46(2.78)</td>
<td>2.87(3.03)</td>
<td>2.41(2.96)</td>
</tr>
<tr>
<td></td>
<td>25-34</td>
<td>2.79(3.02)</td>
<td>2.15(2.96)</td>
<td>2.53(3.01)</td>
<td>2.34(2.98)</td>
</tr>
<tr>
<td>Religion</td>
<td>Yes</td>
<td>2.64(3.02)</td>
<td>1.94(2.78)</td>
<td>2.46(3.03)</td>
<td>2.27(2.95)</td>
</tr>
<tr>
<td></td>
<td>No</td>
<td>2.79(3.02)</td>
<td>2.15(2.96)</td>
<td>2.53(3.01)</td>
<td>2.34(2.98)</td>
</tr>
<tr>
<td>Perception of academic achievement</td>
<td>high</td>
<td>2.64(3.02)</td>
<td>1.94(2.78)</td>
<td>2.46(3.03)</td>
<td>2.27(2.95)</td>
</tr>
<tr>
<td></td>
<td>middle</td>
<td>2.79(3.02)</td>
<td>2.15(2.96)</td>
<td>2.53(3.01)</td>
<td>2.34(2.98)</td>
</tr>
<tr>
<td></td>
<td>low</td>
<td>2.64(3.02)</td>
<td>1.94(2.78)</td>
<td>2.46(3.03)</td>
<td>2.27(2.95)</td>
</tr>
<tr>
<td>Parents' social class rank</td>
<td>middle &gt; 30</td>
<td>2.64(3.02)</td>
<td>1.94(2.78)</td>
<td>2.46(3.03)</td>
<td>2.27(2.95)</td>
</tr>
<tr>
<td></td>
<td>low &gt; 30</td>
<td>2.79(3.02)</td>
<td>2.15(2.96)</td>
<td>2.53(3.01)</td>
<td>2.34(2.98)</td>
</tr>
<tr>
<td>School type</td>
<td>related</td>
<td>2.64(3.02)</td>
<td>1.94(2.78)</td>
<td>2.46(3.03)</td>
<td>2.27(2.95)</td>
</tr>
<tr>
<td></td>
<td>unrelated</td>
<td>2.79(3.02)</td>
<td>2.15(2.96)</td>
<td>2.53(3.01)</td>
<td>2.34(2.98)</td>
</tr>
<tr>
<td>Relationship with teacher</td>
<td>good</td>
<td>2.64(3.02)</td>
<td>1.94(2.78)</td>
<td>2.46(3.03)</td>
<td>2.27(2.95)</td>
</tr>
<tr>
<td></td>
<td>bad</td>
<td>2.79(3.02)</td>
<td>2.15(2.96)</td>
<td>2.53(3.01)</td>
<td>2.34(2.98)</td>
</tr>
</tbody>
</table>

반보다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특성 및 변인자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와 사회적 특성 중에서는 사회적 지지수준으로 보조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은 사회적 지지수준으로 자변량을 8.1%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유의한 변수로 포함되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8.8%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Influencing factors on the subject's mental health

<table>
<thead>
<tr>
<th>Variables</th>
<th>β</th>
<th>R²</th>
<th>F</th>
<th>p</th>
</tr>
</thead>
<tbody>
<tr>
<td>Test anxiety</td>
<td>-0.01</td>
<td>0.01</td>
<td>36.68</td>
<td>0.00</td>
</tr>
<tr>
<td>Religions</td>
<td>0.01</td>
<td>0.01</td>
<td>27.94</td>
<td>0.00</td>
</tr>
</tbody>
</table>

IV.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대한 서양 사회에 비교적 크다고 생각되는 청소년 증가의 인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수준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회적 지지수준이 대학의 정신건강에 기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실험조건의 평균값은 2.42점이었으며, 높은 성과의 "정서"는 2.63점, "과학"은 2.43점이었다. LISS와 MAF(1997)의 사회적 지지수준의 요소를 정서(Emotionality)와 과정(Worry)의 두 차원으로 설계하였는데, 정서(Emotionality)는 사회적 지지수준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정서적 반응으로, 사회적 지지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그 반응은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수준은 "보고" 및 "5" 품목보다 낮았으며, "부재"보다 "과학"에서 높은 사회적 지지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수준의 결과를 전형 연구의 비교한 결과 과학기술 학생은 한
대한 무기력 감동의 충치 못한 정을 자 기조가 더 날
아기의 대출에 시험불안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창조년의 경신건강 평균결과는 1.77점이었으며, 여의
영역의 "자아적" 1.88점, "사회적지지" 1.95점, "정신적상호작용" 1.98점이었다. 
Lee(1997)는 경신적으로
간단한 시험은 경신적인 결과가 없고, 발달상태에 간주
하고 적절한 생활을 기를지, 우리 정신과 정신을 이루어
서 스트레스를 이어올리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정신건강의 산지, 사회적지지, 정신적상호작
용 모두 포함한 Lee(1997)의 창조년 경신건강 자수로 측
정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신건강에 대비 연구를 보면
반도 정신건강의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한 점과
대부분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서울시의 중학생
여 성별별로 1996년의 연구와 비교한 결과 경신건
강의 평균점수가 1.78점으로 대상자의 70%는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
러 본 연구대상자가 대게 도시의 인구에 고등학교로
점진하여 12차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비교가나 지
역별 또는 밀집도 고등학생을 포함한 반도연구가 이루어
지어야 할 것이다.

창조년의 실험결과 창조건강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
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0.38, p<0.001), 시
험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창조건강의 정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실험결과 창조건강과의 상관관계를 하루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실험불안 "정신적상호작용"의 경신
성상관관계를 보였으며 (0.32, p<0.001), "자아적
성" (0.27), "성적지지" (0.18), "사회적지지" (0.01), "체육(0.27)")은 부적
성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신체적, 정
신적, 대인관계의 유, 불안, 저정성, 주목분산, 분리
중, 정신의 유의한 것으로 이루어진 전성건강전반
점(KESI-50)을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을 측정
한 Kim(1998)의 연구에서 실험불안이 높은 학생이 3개
정신건강과의 많은 충돌을 보인다는 결과의 일치하
였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의 대상으로 연구한 Cho와
Dassini(1988)는 실험불안은 높은 애도로 이하여
비례, 정상적인 자기평가가 높아짐에 반해, 높은 자기
적 전개에 respect된 것으로 나타나 두 연구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위영역들의 관계 중 시
험불안의 "정신적 정신건강의 "사회적지지"는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신건강이
가변적이고 밀우 수준의 정신건강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System의
정신건강과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는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 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otts라 응답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 실험 불안과 정신건
강의 변동성도 높아 정신건강의 관계는 관계를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정신건강이 좋을 것으로,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2001)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학교는 청소년이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하는 주요변
장으로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가장보다 크게 차등에 학교생활의 적응은
중요하다. 정신건강의 영향을 위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따보면 모든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경질에 관해 정신건강의 "차이지
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im(2003)의 연구에서 교사의
사회적지 Specifies 학생의 학업지지감을 통해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을 것으로 나타나 교사가 학생의 인내를 존중
하고 학생의 소리나 생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학업지지
가능성이 높아도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정신건강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들은 교사이며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할 인내해 향후 정신건강의 개
선은 그 방향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은 신념일금었고 그 다음은 종교가
포함되어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중은 사회적결속과 종교가
유의한 정신건강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별을
변화한다.
고등학교사람의 보건치료는 청소년이 신체적 건강
을 아시아 정신적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 있다. 정신건강의 정신건강을 항상
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주판 종합하고 있는 신념일금
극복하고 주이는 그 과정을 포괄하고, 이와 관련된
간호주
래를 개편하며, 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고요소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실험적 상중관계 연구이다. 연
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였
으며 연구대상은 13세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과 고등학
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55명으로 하였다. 연구
주요분석은 사고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과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Lee(1987)
가 개발한 정소년 정신건강 지수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SS 10과 t-test와 ANOVA, Schieffert test, Step Multiplcation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소년의 사고요소 중은 최소 1.13점에서 최대
3.01점의 범위로 평균 2.40점이었으며, 정신건강 수
증은 최소 8.64점에서 최대 58.93점의 범위로 평균
2.17점이었다.
2. 정소년의 사회적지 Specifies 학생의 학업지지감을 통해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을 것으로 나타나 교사가 학생의 인내를 존중
하고 학생의 소리나 생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학업지지
가능성이 높아도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았다. 정신건강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들은 교사이며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할 인내해 향후 정신건강의 개
선은 그 방향으로 이어진다.
3. 정소년의 정신건강과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
(t=1.90, p<.05), 학년(F=3.34, p<.05), 
성적별 만족도(F=1.23, p>.05), 성별과의
관계(F=1.10,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근, 청소년의 정신건강과는 일반적 특성 중 종교
(t=2.14, p<.05) 교육 수준(F=1.13,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정소년의 정신건강과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은 신념일금었고, 다음으로 종교가 포함되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80%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사고요소와 정신건
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사고요소를 관찰하고 중복될 수 있는 주요요소와 융용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Choi, Young M (2003). An effect of teenagers'...


The Relation between Test Anxiety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Noh, Ji Yeo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Method: The subjects were 450 students of two academic high schools in J City, who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t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1st to 15th, 2015.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0.0 for Windows through descriptiv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mean score of test anxiety was 2.40 (range: 1.15-3.81) and that of mental health was 2.77 (range: 1.81-5.03).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est anxiety and mental health (r=-0.23, p<0.000). Test anxie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dolescents'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r=0.20, p<0.004), grade (r=-0.54, p<0.000), school life satisfaction (r=0.73, p<0.000) and relationship with the teacher (r=1.60, p<0.001). Mental healt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dolescents'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religion (r=2.14, p<0.000)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r=1.03, p<0.000).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mental health was test anxiety and it, combined with religion, accounted for 9.0% of variance in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Conclusion: Test anxiety and mental health was found to be in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in adolescents. Therefor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needs to reduce their test anxiety to improve their mental health.

Key words: Test anxiety, Mental health

* School Nurse, Sunhwa Girl's High School